

현민 여러분께

에히메현 지사 나카무라 토키히로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감염 경계기' 전환에 대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에 협력해주시는 현민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에히메현에서는 1월 12일에 경계 레벨을 '감염 경계기~오미크론 변이 감염 확산 방지 특별 경계 기간~'으로 올려 2개월 이상에 걸쳐서 이동 및 회식 등에 관한 행동 제한을 이어왔습니다.

그 사이, 에히메현에서는 확진자 수가 일정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하였습니  
다만, 현민 여러분들의 협력에 의해 타 도도부현과 비교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추이 되고 있으며 인구 대비 확진자 수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태입니다.

또한, 감염자 수 절정 이후, 전체 확진자 수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중증화 위험이 높은 70대 이상의 고령자 확진 및 입원환자 수는 크게  
감소하여 의료진의 부담은 경감되고 있습니다.

3월 말부터 고령자의 3차 백신 접종률은 마쓰야마시는 70%, 현 전체로는  
80%를 넘음에 따라, 향후 양성 확인의 증감을 반복하더라도 70대 이상의  
확진자 및 입원환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이며, 의료계 부담이  
급격하게 증대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고령자 이외 연령층의 3차 접종도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 효과는  
향후 전 연령대에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근거로 4월 1일(금)부터 경계 레벨을 '감염 경계기'로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서 '코로나 대응이 장기화됨에 따라 간호사 및 스태프의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있는 한편, 전문가도 지적하였듯이 BA.2  
(스텔스) 계통이 확진자 수 증가 속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  
으로 충분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번 전환은 결단코 '마음을 놓아도 괜찮다'라는 것이 아니라,

◎감염 회피 행동을 철저히 하기

◎특히 회식 규칙 등을 철저히 지키기

◎감염을 확산시켰을 경우 사회에 미치는 영향(여러 사업 활동 및 의료계 부담)을 강하게 의식하기

이러한 전제 조건에 유의하며 사회 경제 활동의 양립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이 전제 조건이 지켜지지 않아 현민 여러분의 생명이 위협받는 감염상황이나 의료계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면, 전처럼 엄격한 대책으로 되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위해 이러한 전제조건을 지키는 행동을 일상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현민 여러분께서는,

○현 외 이동

➢일률적으로 자숙하지는 않으나, 현 외 이동에 충분히 주의

○현 내 이동

➢환기가 잘 안 되는 혼잡한 장소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장소 출입 삼가

○회식 주의

➢다인원·장시간을 피하여 인증점 이용 권장

➢1주일 이내에 감염 위험이 높은 행동을 취한 사람이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은 절대 출석하지 않고, 출석시키지 않음. (사전에 주최자가 반드시 확인할 것)

➢무료 검사도 적극적으로 활용

등 주의사항 및 규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고, 백신 접종이 가능하신 분은 빠른 시일 내에 3차 접종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전환과 더불어 에히메현에서는 ‘현내 숙박 여행 대금 할인(신미칸 할인)’의 신규 판매를 재개(4월 11일~(예약 접수:4월 8일~))함과 동시에 ‘사이클링 시마나미 2022’의 모집 개시(4월 18일~) 및 ‘에히메 난요 키즈나 하쿠’를 개최(4월 24일~)하는 등, 감염 대책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규모 이벤트 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